

성시신문 Magazine

Chuncheon Holy City Movement



기획특집

성시화운동

포스트 코로나
슬기로운 신앙생활

소통과 공감으로 성령안에서 하나되는
공동체가 됩시다
누룩선교와 성시화운동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
정부와 교회

가정특집

춘천성광교회의 5월 가정의달 온라인 프로젝트
성시 1월 다음세대 교육/신 6장 4-9절
어느 달북여성의 가정이야기
모든 생명은 소중합니다

3·1운동 춘천독립운동유적지

맛 기행시즌2 예수미소(味笑) 훈밥

문화 김복동 | 영화 아이빌리브 I believe

도서 책 속의 책

241

Spring 2021

Be joyful always

항상 기뻐하라(살전 5:16)



춘천성시화운동본부
Chuncheon Holy City Movement



춘천성시화운동

QR코드를 핸드폰 사진으로 찍으면 보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holy1972.com



춘천성시화운동홈페이지



성시화운동연구소



춘천성시화운동성시신문



춘천성시화운동월간성시



춘천성시화운동성시방송



춘천성시화운동개입후원



춘천성시화운동교회후원



춘천성시화운동단체후원

창간 1998년 9월 15일 발행인 이사장 이수형 편집위원 최상도, 이연희, 이영규, 김준배, 이관형, 정숙현, 손윤권
편집·발행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주소 강원도 춘천시 서면 금산리 1019 문의 (033) 256-1260 팩스 (033) 257-1260
메일 holycc1972@daum.net

*본 매거진은 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과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본 매거진에 실린 글, 사진, 그림 등 모든 콘텐츠의 저작권은 드림애프에 있으며 허락없이 본 매거진의 콘텐츠를 임의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무단전제나 복사는 불법이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시화운동

- 5 소통과 공감으로 성령안에서 하나되는 공동체가 됩시다
- 6 누룩선교와 성시화운동

기획특집

- 7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
- 8 정부와 교회
- 10 춘천성광교회의 5월 가정의달 온라인 프로젝트
- 11 다음세대 교육/신 6장 4-9절



가정특집

- 12 어느 탈북 여성의 가정 이야기
- 13 모든 생명은 소중합니다



3.1운동

- 14 춘천 독립운동 유적지

기획연재

- 15 예수미 미소(微笑) 훈법*



문화.영화.책

- 17 김복동 |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있는 다윗
- 18 아이빌리브 | 오로지 기도와 믿음으로만 이뤄낸 꿈만 같은 이야기가 펼쳐진다!
- 19 책속의 책 | 로마서와 함께하는 365 가정예배 / 이반 일리치의 죽음

性
時
花

운동
春



소통과 공감으로 성령안에서 하나되는 공동체가 됩시다

이수형 목사 | 순복음춘천교회 담임목사, 강원도기독교총연합회회장,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이사장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가정과 직장, 사업장, 섬기시는 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풍성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작년은 코로나19로 우리의 일상과 마음, 삶의 터전이 깨지고 무너지고 힘든 시기였습니다. 올해에는 코로나19가 종식되어 삶의 터전과 공동체가 회복되고, 서로 간에 자유로운 만남과 교제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새해를 맞이하면 새로운 각오로 시작하게 됩니다. 올해는 소통과 공감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되어 위기를 기회로 삼아 새 창조의 역사를 만들어 가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미국의 저명한 경영학자 '피터 드러커' 교수는 <프로페셔널의 조건>이란 책에서 "기업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60% 정도는 잘못된 커뮤니케이션에서 비롯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조직과 공동체 내에서 소통은 중요한 과제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소통과 공감, 쉬우면서도 어렵고 알면서도 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은 소통과 공감을 잘하고 계신가요? 소통은 자신의 생각과 뜻을 상대방에게 전달하고 지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가 아니라 가슴이 전달되고 서로 공유하는 것입니다. 공감은 상대방의 감정, 주장에 자기도 그렇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향한 열린 마음이 공감의 출발점입니다.

지난해에 강원도기독교총연합회는 철원 수해지역에 사랑의 물품을 보내고, 강원도의 여행지와 기독교 유적지를 소개하는 『강원도 인문학 산책』 서적을 출판하였습니다. 강원도의 소중한 기독교유산, 역사문화유산, 관광자원을 경험하고 알리고, 지역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순복음춘천교회는 성탄절에 지역주민들과 소통하고 사랑을 나누기 위하여 사랑나눔 캠페인을 아파트 엘리베이터, 공동현관, 버스 정거장 등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힘들지만 미소를 잃지 않고 함께 이겨내자는 응원메세지와 사탕, 초콜렛, 핫팩, 과자 등을 함께 붙여서 성탄의 기쁨소식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랑에 감동을 받은 지역주민들이 엘리베이터, 춘천막카페,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카페 홈페이지 등에 감사와 사랑의 메세지를 올렸습니다. 이것이 지역에서 소통과 공감을 이루어가는 공동체의 모습이 아닐까요.

급속하게 변화되는 환경과 시대 속에서 소통과 공감은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깊은 정서적 유대감을 만들어 줍니다. 자신과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되고, 우리 사회의 갈등을 치유해 줄 것입니다. 소통과 공감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이 바로 소통과 공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섬김을 통하여 소통과 공감을 이루신 것을 본받아 먼저는 나부터 귀를 막고 소통을 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고, 내가 먼저 소통하고 공감하고 배려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소통하고 공감한다면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고, 웃음과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가정, 지역, 대한민국이 될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절대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서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그곳에 따뜻한 이웃이 있고, 당신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두운 가운데서 빛을 비추시고 절망을 희망으로, 슬픔을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누룩선교와 성시화운동

이영길 | 성시화운동연구소 소장

성시화운동은 “가루 서 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마13:33)과 같다. 누룩은 본체에 스며들어 희생함으로 본체의 성격을 완전히 변화시킨다. 우리는 진영적 사고에 익숙해 있지만, 성경은 누룩처럼 생각하라고 가르친다. 진영적 사고는 천국이 “여기에 있다, 저기에 있다”(눅17:20-21)고 생각한다. 천국은 특정한 공간이 아닌,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한다.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죄가 영향을 발휘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의도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영향을 미친다.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영역 속에 총체적으로 임하는 것이다.

죄는 세상 속에, 의는 교회당 안에 있다고 생각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피하기 위해 교회당에 머물러 있어야 할 것이다. 죄는 평일에, 의는 주일에 있다고 생각하면 평일과 주일을 전혀 다른 원리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죄는 세상의 직업 속에, 의는 성직 속에 있다고 생각하면 세상의 직업이 하나님의 소명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성경은 천국이 여기에 혹은 저기에 있지 않고 마음속에 있다고 가르친다. 성시화운동은 마음을 새롭게 하고 도시를 거룩하게 하는 운동이다. 도시의 한 공간 안에 천국을 마련하는 것이 아닌, 전 도시가 천국의 영향을 받도록 하는 운동이다. 누룩처럼 가루 서 말을 “동췌로” 부풀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곳에 주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해야 한다. 정부에서 일하고 있다면 그 정부에, 시장에서 일하고 있다면 그 시장에,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면 그 가정에, 기관에서 일하고 있다면 그 기관에, 정당에 속하여 일하고 있다면 그 정당에, 교회에서 섬기고 있다면 그 교회에 주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해야 한다. 성시화운동은 누룩과 닮은 운동이다. 도시의 모든 영역이 그리스도인들로 말미암아 복을 누려야 한다.

춘천성시화운동은 죄와 우가 극심하게 분열되어 있던 운동 정국에서 일어난 운동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좌편이나 우편에 있지 않고 마음에 있는 것을 강조했다. 좌편이든 우편이든 더 중요한 건 마음이다. 진영논리는 분열을 일으키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진영을 새롭게 한다. 성시화운동은 또한 거룩함의 영역을 구분하지 않았다. 거룩함이 교회에만 머물러 있다고 생각하고 교회당 안에서만 성시화운동을 한 것이 아니라, 개인의 삶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도시 안에서 거룩함이 온전해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성시화운동은 교회운동인 동시에 사회운동이었다. 성시화운동은 성경의 누룩적 사고와 맞닿아 있다.

천국은 누룩과 같다. 누룩은 본체에 스며들어 희생함으로 본체의 성격을 바꾼다. 천국은 진영이 아닌, 모든 진영들 위에 임하는 거룩한 영향력이다.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

김한호 목사 | 춘천동부교회 위임목사, 서울장신대 겸임교수

2020년 3월 11일, 세계보건기구가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을 선언한 이후, 1년의 시간 동안 전 세계가 두려움 속에 움츠려 있었습니다. 이런 움츠림은 우리 한국교회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방역 지침에 따라서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고, 예배 참여 인원과 많은 모임들이 규제를 받으면서 상당한 피로와 위축에 시달렸습니다. 언론과 방역 당국은 코로나 유행의 원인을 교회가 제공한 것처럼 비난받도록 조장하기도 했습니다. 언론과 시민단체들은 교회가 현장 예배를 고집하는 것



이, 배려없고 이기적인 모습이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교회는 대사회적 신뢰도가 하락하고, 부정적 이미지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교회는 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국민의 보건과 감염병 예방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며 사회적 의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대한 정부의 기준과 잣대가 애매하고, 형평성이 맞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교회는 음식점이나 일반 시설과 다르게 불특정 다수가 아닌 등록된 이들, 즉 대부분 알고 있는 이들이 제한된 시간, 제한된 예배만 드리고 돌아갑니다. 그런데도 예배는 더 많은 제약을 받는 것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처럼 받아들여지고, 그렇게 여겨지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교회의 철저한 방역의 의무와 더불어 정부의 합당하고 형평에 맞는 방역 지침이 함께 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로 장기화되는 비대면의 상황 속에서 교회들은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영상에 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영상의 장점도 있지만, 반면 단점도 존재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전해지는 음성보다는 눈으로 보는 영상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들려진 말씀은 믿음이 요구되는 측면이 있다면, 시각화된 말씀은 믿음 없이 봄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시각화는 더 나아가 예배와 말씀의 본질이 변질될 수도 있습니다. 안전성과 편리성 속에서 영상으로된 비대면 예배의 확산은 자칫 하나님을 대면하는 예배의 본질에서 벗어날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에 맞추어 저희 교회는 사회적 법을 지키고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송구영신 예배와 신년 성찬예배를 비대면으로 드라이브 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법을 준수하고, 사회적 인식을 반영하면서 동시에 공동체성을 다시 일깨우기 위한 몸부림이었습니다. 그러나 드라이브 인 예배, 온라인 예배 역시 한계가 있습니다. 이는 재난 상황과 같은 현실의 불가피한 교육지책이요, 대체일 뿐 정상적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자유롭게 예배하게 될 때를 기도하는 한편, 현재 비대면의 상황 속에서 예배의 본질을 말씀과 공동체 회복에서 찾도록 찾아야 할 것입니다.



정부와 교회

최상도 목사 | 사암성결교회 담임목사, 성시신문 편집위원장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으로 국가와 사회, 교회는 유래 없는 충격을 받았다.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될까? 전문가들마다 견해가 다르다. 코로나19이후 “인류는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이전과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이다”(코로나사피엔스, 최재천)라는 주장으로부터 시작하여 그 정도까지는 아닐지라도 “코로나19의 영향은 향후 수 년 혹은 수십 년간 그림자를 드리울 것이 분명하다”(코로나이후의 세계, 제이슨 생커)는 비교적 온건한 주장까지 다양하다. 우리는 어느 극단을 피해야 한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코로나19 이후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 특히 정부와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성경적 세계관에 입각한 선명한 기준을 가질 필요가 있다.

정부와 교회: 기능이 다르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각각 “그 종류대로”(창1:12) 창조하셨다고 했다. 하나님은 인류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창1:28)고 하였고, 이는 하나님의 창조계획 속에 분명히 정부와 교회가 있었을 것이다. 우리는 정부와 교회의 역할, 이 둘을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일찍이 네덜란드의 수상이자 목사였던 아브라함 카이퍼(Abraham Kuyper, 1837-1920)는 이에 기초하여 영역주권론을 설파하였다. 정부라는 영역과 교회라는 영역은 구분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물론 이 말이 현대에 논란이 되고 있는 극단적 “정교분리”와는 뉘앙스가 다르다. 분리가 아니라 구분이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 일찍이 주님께서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마 22:21)고 하였다. 이는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 분리된 것은 아니나 구분되어야 한다는 의미와도 통하는 것이다.

정부: 교회에 대한 통제에 신중해야

“성인지 감수성”(性認知 感受性)이라는 말이 21세기 한국사회의 중요한 화두가 되었듯 정부는 소위 “종교인지 감수성”(宗教認知 感受性)을 발휘하여야 한다. 교회를 그저 커피숍이나 문화센터의 하나로 박서는 안 된다. 다른 업종을 통제하듯 종교 혹은 교회를 통제하고 지배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교회는 팬데믹으로 인해 고통 받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찾는 영혼의 쉼터이다.

종교인지 감수성(宗教認知 感受性)을 발휘할 수 있는 진정한 크리스천 정치인이 그림다.

교회: 정부를 비난하는 일에 신중해야

우리는 현장애배를 저지하는 정부에 대해 일제강점기의 신사참배요구와 같은 격으로 반응하는 데 대해 보다 신중해야 한다. 팬데믹은 대단히 복합적인 상황이다. 보수기독교계에서 이야기하듯 설령 정부가 교회를 통제하고자 하는 분명한 의도를 배경에 깔고 있을지라도 모든 것을 다 그런 관점으로만 돌아가서는 안 된다. 다차원적으로 보아야 한다. 분명히 이를 이용한 사탄의 세력들의 공격이 있다. 하지만 팬데믹의 상황은 보다 복잡하다. 실제 모든 모임은 감염원이 될 소지가 있다. 교회모임도 예외가 아니다.

정부가 보지 못하는 더 큰 위험을 교회는 경고하고 준비해야

코로나19 위기의 시대에 정부와 교회의 관계에 대한 크리스천들의 좋은 모델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창세기의 요셉이다. 요셉은 애굽 바로왕의 걱정을 잘 이해하고 있었고, 국가의 책무도 잘 이해하고 있었다. 요셉은 정부에 대립각을 세우기보다 애굽 정부가 미래를 대비하는 데 도움을 주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러한 요셉을 모델로 하여 현대 교회는 정부가 보지 못하는 더 큰 위험을 준비하고 도와야 한다. 앞으로 전염병만이 아니라 대기근 같은 대재앙도 올 수 있다.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믿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재림직전에 있을 지진과 생태계의 혼란, 대기근을 성경을 통해 읽게 된다. 그러하기에 교회는 정부에 최대한 협조하면서 정부가 보지 못하는 또 다른 측면의 재앙과 영혼구원을 미리 대비해야 한다. 기도 가운데 예수님의 그날을 준비하여야 한다.

도 시 와 교 계 를 돕 는

기 독 교 이 단 대 책, 상 담 연구 소

기/독/교/이/단/상/담/연/구/소

소장 : 신현천 목사
T. 033-253-1260 F. 033-257-1260

후원계좌 : 신한 131-021-169908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춘천기독교연합회 / 춘천성시화운동본부

- FWIA직장리더 (3월개강 / 12주)
- 포럼C (4월개강)
- 청소년연합집회 (5월개강)



포럼C

- 2021년 4월 29일(목) 오전10:00
- 장소: 강원 CBS

통계로 보는 코로나19, 교회의 미래는?

강사: 지용근 대표 | 목회데이터연구소,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졸업, (주)지앤컴리서치 대표이사)

주관·협력 강원CBS | 강원기독교총연합회 | 춘천성시화운동포럼 | 성시화운동연구소 문의 010-9698-2993(춘천성시화운동본부)

2021년 5월 청년 연합 집회

5월 25일(화), 저녁 7:30~

• 찬양팀 유비쿼터스 • 강사 조지훈 목사(기쁨이있는교회)

문의. 010-9698-2993, 춘천성시화운동본부



후원 참여

신협 131-005-937566 (춘천성시화운동)

춘천성시화운동본부 QR코드 후원참여에 들어가시면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기사제보 및 광고문의 033.256.1260 / 010.9698.2993 | 홈페이지 holy1972.com

검색

춘천성광교회의 5월 가정의 달 온라인 프로젝트

조용아 목사 | 성광교회 담임목사



지난 2020년 5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교회에서 전교인들이 함께 하지 못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춘천성광교회에서 가졌던 '가정의 달 온라인 프로젝트'를 소개합니다.

코로나 상황이 길어지면서 삶의 모든 부분이 강제로 멈춰졌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일상이었던 모임도, 여행도, 심지어 교회의 예배도 제약이 있었지요. 끈끈했던 성도들 간의 교제도 자연히 소원해질 수밖에 없던 상황에 성도들 가정의 형편이 궁급해졌습니다. 그래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으면서 성광의 온 가족이 지혜를 찾아 함께 떠나는 온라인 여행을 기획했습니다.

코로나 시절,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하자는 의미로 지혜의 말씀 <잠언>을 읽었습니다. 잠언이 총 31장이니 5월의 31일 동안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딱 맞았습니다.

가정에배 겸 가정의 온 가족이 함께 둘러앉아 각 가정에 할당된 잠언 1장씩 읽습니다. 그리고 그 읽는 것을 녹음합니다. 1일에는 잠언 1장을 이 가정에서, 2일에는 2장을 저 가정에서, 3일에는 3장을 다음 가정에서 릴레이 잠언 읽기를 합니다. (미리 할당하여 녹음을 합니다.) 그 녹음된 것을 교회는 해당 날짜에 해당 장을 전교인에게 배포하여 함께 성경읽기에 동참토록 합니다. 녹음파일을 취합할 때 그 가정의 가족사진을 함께 받습니다. 잠언을 함께 읽는 사진도 좋고, 가족의 추억이 담긴 사진도 좋습니다. 녹음파일과 사진을 편집하여 동영상화해서 유튜브를 통하여 전교인들도 매일 잠언 한 장씩 읽도록 합니다. 녹음한 것을 전체 취합하면 '성광 오디오 잠언'이 됩니다.

가족이 아닌 혼자여도 가능합니다. 성도는 모두 한가족이니까요. 혹은 구역별로, 기관별로, 모임별로 성경읽기 녹음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또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성경 읽기만 하는 것이 아닌 녹음을 하는 것은 또 다른 많은 은혜와 에피소드를 남기게 됩니다.^^

저희 교회는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성광 오디오 성경'을 만들어 가고 있으며, 올해는 전교인에게 '맥체인 성경읽기'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가득한
행복한우리집

다음세대 교육/신 6장 4-9절

이연희 목사 | 아미교회 담임목사

영원하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 시공간의 제약받는 인간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뿐이다. 사람을 하나님 나라 구현에 동역자로 삼으셨다. 지금 우리는 가보지 않을 길을 가며, 예측불허의 시기를 지나가고 있다. 통제와 경험이 통하지 않는 시대를 접하고 있다. 어떻게 하면 계속하여 좋은 일군과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는 사람을 발굴할 것인가? 많은 방법론보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해답을 찾아야 한다.

신명기 6장 4-9절 말씀이다

말씀이 삶이 되고, 생활이 되고, 습관이 되면 길이 열리고, 보이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역사를 알게 된다. 여호수아 세대, 가나안의 자녀세대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다

첫째, 부지런히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다.

어디서 누가 가르치고, 배우는가? 부모가 스승이 되고, 가정이 학습 장소인 것이다.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자녀들에게 교육이요, 학습이다. 눈으로 보고, 듣고, 배우는 학습처럼 정확하고, 효과 있는 교육은 없다. 코로나 시대의 가장 안전한 가정에서, 거리두기로 외출을 자제해야 하는 공간의 제약 속에서 가정을 교육장소로 삼고, 부모가 함께 배우고, 가르치는 것이다. 신앙교육이나, 삶이나, 부모보다 더 좋은 교사가 없다.

“내 자녀들아 나의 말을 들으며 나의 말에 귀를 기울여라” 할 수 있는 부모와 가정이 되면 된다. 신실한 신앙인은 가정교육의 산물이다.

둘째, 코로나 용어 중 비대면이란 용어가 얼마나 많이 사용되는지 알 수 있다.

스마트폰이나, 유튜브, SNS 문자 메시지 등 온라인 기기들을 이용하는 교육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비대면 방법을 어릴 때부터 가까이 하는 세대가 형성되어 가고 있다. 신앙교육도 멀티로 접근하여 공간적 개념을 뛰어넘어 어디서나 할 수 있도록 도전하고,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다.

셋째, 소그룹으로, 일대일로 하는 교육방식의 효율성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대그룹으로 하는 공동체가 거리두기와 불확실한 상황의 전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만나실 때 대그룹으로 만나기도 하였지만, 한 사람씩 만나서 치유와, 구원사역을 하신 것을 알 수 있다. 소그룹의 교육과 일대일 교육으로 신앙의 전수와 다음세대를 구축하는 것은 시대적 필수사항이다.



부지런히 부모가 가르치고, 배우고, 비대면 시대에 활용할 수 있는 미디어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다. 많이 모이고, 자주모이는 것을 할 수 없다면 소그룹과, 모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일대일방법으로 신실한 제자, 자녀세대를 세워가는 방법이 있다. 더 교육하기에 좋은 시대라고도 볼 수 있다. 하나님은 모든 문이 닫힌 것 같을 때도 열어두시는 분이 있으시다. 도전해보자.

어느 탈북 여성의 가정 이야기

전찬규 목사 | 드림마켓 대표

우리 땅 대한민국 남한에 와서 생활하고 있는 탈북민들은 엄연히 한국 국적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이다. 탈북민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이야기들은 그들이 가진 특수성 때문에 우리에게 다소 생경하고 TV프로그램에서 전해 들은 정보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러한 탈북민 중에서 어느 집사님의 이야기는 삶의 질곡의 역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다. 경제적인 이유가 되었든, 다른 이유가 되었든지 간에 중국으로 팔려갔고, 중국에서 중국 남성과 결혼을 하고 아들을 낳게 되었다. 그런데 이웃 중국인의 신고로 북한에 북송되었고, 교화소에 갇히게 되었다.

교화소 복역을 마친 후 다시 중국으로 탈출하여 꿈에 그리던 아들과 재회하게 되었다. 그리고 북한과 중국의 고단했던 삶을 뒤로하고 혈혈단신으로 남한에 입국하게 된다. 낯선 땅 남한에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일들을 하게 되었고, 어느 정도 돈이 모아지자 중국에 있는 아들을 데리고 나온다. 그리고 다음으로 중국인 남편까지 한국으로 오게 되었다. 이렇게 3명의 가족이 북한, 중국을 떠나 남한에서 재회하여 가정을 꾸리게 되었지만, 행복한 삶에 대한 기대는 오래가지 못한다. 중국 남편의 술과 폭력이 문제였다. 몇 번의 신고와 경찰 출동이 이어지고 결국 이 여자 집사님은 이혼을 하게 된다. 지금은 아들과 둘이서 정부에서 지원해준 임대 아파트에서 가난하지만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 자신과 같은 여성을 돕고 싶은 마음이 있어 상담학 공부도 시작하였고 초등학교생 아들이 무럭무럭 자라나는 모습을 보며 마음의 위안을 얻고 있다.

우리는 누구나 내가 원하는 가정, 국가, 사회를 선택해서 태어나지 않는다. 알곳은 숙명 속에서 자신의 운명을 개척해 나가고 있는 탈북민 여성의 아픈 가정사는, 험난한 광야 같은 인생살이의 고난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네 삶의 극단을 보는 것 같다. 극한 상황에서 또 다른 나를 발견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가는 탈북여성들에게 응원을 보내고 싶다.



우리의 이웃으로 살아가는 탈북민 가정들이 이웃의 관심과 배려로 이 땅에서 잘 정착하여 살아가기를 소망해 본다. 탈북민 가정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은 이웃을 향한 우리의 배려와 사랑의 실천에 달려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평안이 탈북민 가정 가운데 함께하기를 기도한다.

모든 생명은 소중합니다

전하연 사무국장 | 행복을 더하는 여성인권위원회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사편71:6”

우리는 모두 태아였다. 하나님께서 잉태되기도 전에 우리를 아시고 선택하셨다. 태아가 아니었던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은 어머니의 태중에서 낙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낙태실체를 밝히는 영화 ‘언플랜드’를 꼭 보기를 바란다. 영화 ‘언플랜드’(unplanned)는 ‘미리 계획하지 않은(임신)’이라는 뜻으로, 애비 존슨의 실화를 담고 있다. 애비 존슨은 낙태 기관 ‘가족계획연맹’에서 낙태 상담사, 심지어 대표로까지 일하며 2만2000건이 넘는 낙태에 가담했다. 낙태 경험자로서 비슷한 처지 여성들을 낙태하게 하는 일이 그녀에겐 옳은 일이었다. 그러나 그렇게 일한 지 8년여, 처음 수술실에 들어간 그녀는 자신의 신념이 잘못됐음을 깨닫는다. 초음파 검사 화면에 드러난 태아 머리와 팔다리, 흡입용 도관을 피해 발버둥 치는 모습, 기계가 빨아들이자 찢겨 나가는 태아, 그 모습을 보며 그녀는 생명운동가로 돌아서게 된다. 미국에서 개봉 후 많은 사람에게 생명의 소중함을 알렸고 미국 9개 주에서 낙태 반대 법안을 도입했고 500여 명이 넘는 낙태 업계 종사자들이 생명 수호자로 돌아섰다.

현재 정부는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빌미로 낙태를 전면 개방하려고 한다. 뱃속 아기들을 임신부의 세포 덩어리로 둔갑시켜 그들의 생명이 보호받을 권리를 제거하려 하고 있다. 낙태를 법으로 금지하던 시기에도 학살이란 표현이 무색할 정도로 낙태가 자행됐음에도 이젠 낙태를 합법화하려고 한다. 교회가 태아를 죽이는 낙태에 침묵한다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알고도 영혼이 있는 태아 살인 행위를 묵인하거나 방관하는 것이다. 한국교회는 ‘낙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생명을 죽이는 죄’라고 선포하고 태아의 생명을 지키고 어린 미혼모들의 안전한 출산을 최선을 다해 도와야 한다.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태아들을 살리는 일을 해나가야 한다. ‘낙태와의 전쟁’은 태아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우리의 생명을 기꺼이 바칠 수 있을 때 승리할 수 있다. 태아의 생명을 존중하는 것이 곧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다.



춘천 독립운동 유적지

김동정 장로 | 신성교회 가톨릭관동 대학교수

십자가당 결성지[춘천중앙감리교회 내 춘천여자관(1층), 1925년 건립]



1933년 4월 19일부터 3일 동안 춘천읍내 감리교 단체집회소인 춘천여자관에서 열린 조선감리교 동부지구 연례회의 기간 중에 십자가당 결성식 거행, 한서 남궁익 선생의 영향을 받은 감리교인들에 의해 주도, 공존공영의 지상천국 건설 목표, 이 사실이 발각되어 남궁익 선생을 피뎀 유자훈, 남천우, 이운석, 김복동, 이기섭, 김경환, 남궁식, 김재인, 송완식 등 당원전체 피체,

1935년 1월 유자훈과 남천우는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1년 6개월 형, 김복동 6개월 형, 남궁익 선생은 보안법 위반으로 10개월 형을 각각 선고받음, 십자가당 사건은 당시 기독교인들의 항일운동의 시도라는 점에 의의를 둬,

춘천고등보통학교(현재 춘천고등학교) 상록회 회원들 [우리의 友情은 鳳儀城 常綠같이 푸르자]

1937년 3월에 비밀결사인 상록회 결성, 항일독립운동을 전개할 지도자 양성이 목표, 창립당시 임원은 회장 조규석, 부회장, 남궁채, 선전부장 문세현, 조직부장 이찬우, 서적부장 백흥기, 회계 용환각 등, 상록회는 1937년 1월 춘천농업학교(현 소양고등학교)에서 이준환, 김재하, 김시묵, 김창경, 반영균 등에 의조직된 독서회와도 비밀리에 연락하



는 등 춘천지역 항일학생운동 주도, 이준환을 비롯한 독서회 회원들은 기독교 신자이고 남궁익의 제자였으며, 춘천중앙교회 유한익 목사에게 가르침을 받음,



예수의 미소(味笑) 혼밥*

이관형 춘천 한길교회 권사



5년 전부터 혼밥(혼자 먹는 밥)뿐만 아니라 혼영(혼자 영화보기), 혼쇼(혼자 쇼핑)는 물론 이전 혼여(혼자 여행)가 유행이다. 유행에 민감한 필자도 혼자 밥을 먹는 경우가 허다한데 혼밥을 하는 이유를 굳이 말하자면 첫 번째는 하루 종일 많은 사람들 가운데 시끌벅적하고 복잡한 직장을 퇴근한 후 조용히 혼자 있고 싶어서이고, 두 번째는 누구랑 같이 식사하게 되면 늘 습관처럼 상대방의 식사습관을 관찰하게 되고 또한 직장 때문에 내가 계산을(상대방

도 내가 계산을 할 줄 알고)하는 경우가 허다해서 이 또한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은근히 경제적인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나는 혼밥을 하는 경우 내 자신에겐 인색하리 만큼 내 나름대로의 원칙이 있다. 그것은 바로 음식 값이 4,000원이 넘는 것을 사 먹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긴 고기집이나 탕 음식점에는 1인분을 팔지 않으니 어차피 가질 못하고) 그렇다 보니 집 근처 분식집에서 라면보다도 더 저렴한 3,000원짜리 우동을 먹거나 1,500원짜리 야채김밥 한 줄을 사먹는다. 이것도 귀찮으면 아예 편의점 도시락을 사 갖고 가서 거실 TV 소파에 앉았거나 누웠거나 하면서 먹을 때가 많다. 나이 오십 중반에 접어드니 누가 저녁을 사준다 해도 내 돈 주고 사먹지 않는 요선동 '봉운장'의 비싼 갈비가 아니면 외출하지 않는다. 그래서일까? 요즘 나는 일본 케이블 J채널에 푹 빠졌다. 특히 "극심한 공복이 찾아왔을 때 잠시 동안 그는 자기 멋대로가 되고, 자유로워진다.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먹고 싶은 것을 먹는 자신에게 주는 포상"이란 대사로 시작하는 일본드라마 '고독한 미식가'는 일본 만화를 원작으로 만든 TV 드라마이다. 세일즈맨인 주인공이 열심히 일하는 가운데 자신에게 주는 일종의 포상처럼 우연히 들린 맛집에서 이것저것 주문해서 맛있게 혼자 식사하는 모습이 나와 동질감을 안겨준다. 이것 말고는 잔잔한 에피소드가 작은 웃음을 선사해준다. 그럼 과연 혼밥은 마냥 좋은 걸까?

다소 역설적이지만 우리가 함께 식사하는 일의 중요함을 깨닫기 위해선 가끔 혼자 밥을 먹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우리 크리스천의 지상최대의 목표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하라는 말씀처럼,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라는 말씀처럼 우리 주위에 특히 교회 내 교우가 혹시나 혼밥을 하고 있지는 않나 살펴보고 혼밥을 하는 경우 같이 밥 한 끼 먹자라는 지킴지도 못할 약속을 하지 말고 같이 식사부터 하자. 그리고 혹시나 아픈 상처가 있으며 보듬어 주고 중보기도를 하자. 바로 이렇게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을 연장시켜주신 것이다. 필자는 30년 넘도록 매주 주일 저녁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부모님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다. 식사를 하면서 부모님과 많은 대화를 못하지만 얼굴에는 기뻐하시는 표정을 역력히 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목사님이 주일날 설교라는 정성껏 맛있게 차려 놓은 밥상을 우리가 세상 이런저런 일로 해서 밥상을 물리면 목사님은 그 식은 밥상을 쳐다보며 얼마나 서운하실까하는 생각이 든다. 잘 먹고 잘 살자!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사명이다.

영
화
책

문화에 빠지다 ③



김복동

Salvation 2015-14
160×130cm | oil on canvas & wood



카라바조의 마지막 작품으로 추정되는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있는 다윗』(1610.125×130cm 로마보르제제미술관)은 많은 해석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작품이다. 그림 속 다윗의 얼굴과 골리앗의 얼굴은 카라바조 자신의 모습을 모델로 그린 것이다. 그림 속 다윗의 표정은 승리와 환희에 찬 것이 아니라 슬픔과 연민으로 가득 차있고 다윗의 손에 들려진 골리앗은 평생 자신의 천재성만을 믿고 교만에 찬 슬픈 자화상으로 그려졌다. 순수했던 다윗도 나이가 들고 세상을 겪으며 골리앗처럼 변해갈 자신을 예감한 것일까.

그러나 끝내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다. 순수한 어린 소녀처럼 ...



아이빌리브

김춘배 화백(성시신문 편집위원)

아홉 살 소년을 통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믿음의 기적!
오로지 기도와 믿음으로만 이뤄낸 꿈만 같은 이야기가 펼쳐진다!



‘믿음’과 ‘기적’, 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일상적으로 고민하고 생각하는 명제인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만나는 기적의 순간은 지극히 만나기 힘든 체험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이러한 일이 우리 일상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다고 보여주는 정말 기적 같은 영화가 있다.

그리 유명한 감독이나 배우로 임팩트 있는 장치 및 스토리텔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님에도 은근히 놀라운 감동으로 다가오는데, 너무 소박하고 천진한 모습으로 나타나 신선하고 은혜로운 감흥을 불러일으킨다. 이렇게 귀엽고 순수한 전도영화는 또 처음이다.

불신자이자 방송국 앵커인 아빠와 의사인 엄 마를 둔 아홉 살 소년이 어느날 문득 들어가 본 동네의 교회에서 계시관의 성경말씀(요한복음)과 정원에 설치되어 있는 예수님이 눈먼 청년을 치유하는 모습의 조각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우연히 예배당에서 마주친 다리 절단되어 휠체어를 탄 상이군인이 소년을 보고 난 뒤 돌연 치유가

되면서 그 일이 메스컴을 타고 방송국 간 경쟁도 일으키기도 하는 등의 상황으로 발전하게 된다. 그런데 소년은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 드리는 기도가 응답이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묻거나 요구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듣는다고 하여 참 경이로운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고등학교 때인 것으로 기억하는데 아침 등굣길에 지체장애인 필자의 가방을 뺏다시피 교실까지 갔다 주곤 하던 선배가 있었다..

그때 너무 감동하고 감사해서 속으로 그 선배를 위해 기도했는데 나중에 정말 좋은 대학으로 가게 된 것을 알고 놀라움과 신기한 은혜의 기운으로 감사함을 느꼈었다... 그 후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면 대체로 좋은 결과로 응답이 되는 일이 한동안 계속되어 그것이 지금까지 내 신념의 하나가 되고 있었다. 바로 그러한 기억을 새삼 떠올리게도 하는 것이다! 영화 전체의 분위기가 주연인 아역배우의 이미지와 인상 그대로 평범하면서 귀엽게 느껴지는 매우 드문 경험이기도 하였다. 어떻게 보면 거부감 들 정도의 상황이나 설정임에도 오히려 감동의 장치로 바꾸는 이야기의 짜임새가 놀랍다.

영화의 대사 중 독실한 신자와 광신도의 차이를 묻는 점도 우리가 공감적으로 함께 고민하고 분별해야 할 주제가 될 수 있다. 영화의 클라이막스에 이르러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모두가 함께 누리는 회복의 기적으로 믿음의 소망이 넘치는 분위기와 엔딩 부분의 OST음악도 참 은혜롭다.

그리 거창하지 않고 다만 ‘나는 믿어요. I believe’ 정도의 간결 명쾌한 제목만큼이나 영화의 전체적인 분위기도 그렇게 소박하고 단순한 착함의 모습이다. 참으로 불안하고 어려운 시절에 다시 맞이하는 부활절에 잠시 이렇게 동심과 같을지도 모르는 순전한 영적 성결의 메시지를 주는 영화의 감동을 나누면서 저마다 치유와 도우심의 은혜와 기적을 함께 누리봄이 어떨까 싶다.

책속의 책

정숙현 전도사(안디옥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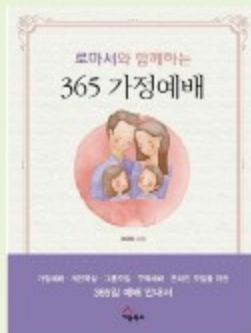
온 세계는 작년 한 해를 코로나19라는 질병에 도둑맞은 듯이 보였으며, 1년이 지난 지금도 이 상황은 지속되고 있다. 언제 끝일까? 라는 기다림 속에서 이젠 밀쳐두었던 우리의 일상을 슬기롭게 회복시키는 일에 집중을 해야 할 때이다. 코로나19 이전과는 다른 삶이 우리를 기다릴 것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말하듯이 이제는 스스로가 이 변화된 삶에 대한 대비를 해야만 한다. 특별히 신앙생활과 일상생활을 분리하지 않고 하나로 인식하며 살아야 하는 크리스천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법 중의 한 가지인 책읽기를 통해 말씀과 멀어지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두 권의 책을 소개한다.

책소개

로마서와 함께하는 365 가정예배

김태희 지음, 세움북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로마서의 말씀을 365일 분량으로 하루 15분 정도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내용 설명, 나눔을 위한 질문, 기도문까지 어느 누구에게나 쉽고 간결한 내용으로 개인묵상뿐만 아니라 가정, 교회공동체에서 활용하기에 좋아서 매일 새벽을 깨우거나 매일 저녁을 말씀으로 마무리 하고 싶은 이들에게 권하고 싶다.



이반 일리치의 죽음

레프 니콜라예비치 톨스토이 지음, 이순영 옮김, 문예출판사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의 중단편 중에서 가장 훌륭한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이반 일리치의 죽음」은 인간의 삶과 죽음에 대한 생각과 문제의식이 잘 나타나 있다. 인생의 성공가도를 달리던 이반 일리치라는 한 남자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상처로 돌아킬 수 없는 죽음의 지경에 이른다. 인간의 삶에서 분리할 수 없는 삶과 죽음을 냉철하게 분석하면서 또한 고통 받는 이들에게 어떤 위로가 필요한가에 대해서도 생각할 계기를 안겨준다.

